KIA 로니 복귀 '시동'

퓨처스리그 두 번째 등판 3이닝 2실점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로니 윌리엄스가 퓨처스리그에서 두 번째 시험 무대를 가졌다.

로니가 18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지난 4월 28일 좌측 하지 임파선염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로니의 두 번째 실전 등판이다.

앞서 로니는 올 시즌 1군 4경기에 나와 21이닝을 4자책점으로 막으면서 1.71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2승 1패를 기록했다.

치료와 재활을 해왔던 로니는 지난 15일 LG트윈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복귀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LG전 성적은 1.2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1탈삼진 3실점으로 좋지는 않았다.

두 번째 실전에서도 실점이 기록됐다.

로니는 2-0으로 앞선 1회말 첫 타자 이인혁을 1루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정진기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고 도루도 허용했다. 박석민의 연속 안타로 1사 1·3루, 천재환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점수를 내줬다.

이어 최보성에게 좌전 안타는 맞았지만, 김윤수의 유격수 땅볼로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2회에도 연속 안타를 허용했다.

1사에서 김한별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고, 김정호의 타구가 좌측에 떨어지면서 2루타가 됐다.

로니는 1사 2·3루 위기에서 이인혁과 정진기의 방망이를 연달아 헛돌게 하면서 실점은 하지 않았다.

3회 시작은 몸에 맞는 볼이었다.

박석민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로니가 천재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2사에서 나온 김윤수의 2루타로 2번째 점수를 줬다.

로니는 김준상을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로니는 3회를 끝으로 재활 후 두 번째 등판을 마무리했다.

성적은 3이닝(58구) 6피안타 1볼넷 4탈삼진 2실점.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8㎞를 찍었다.

초반 KIA 선발진 중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였던 로니지만 아직 완벽한 페이스는 아닌 만큼 또 로니의 이탈에도 선발 로테이션이 순조롭게 돌아가면서 복귀는 차분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로니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옆구리 부상으로 캠프 중반 자리를 비웠던 사이드암 임기영이 때맞춰 복귀했고, 물집 부상으로 실전이 부족했던 좌완 이의리도 기복은 있지만 위력적인 구위를 보이면서 선발진을 지키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로니 윌리엄스가 18일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드래곤즈 김태현(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7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전남드래곤즈, 7경기 만에 승리

K리그2 FC안양 2-0 꺾어

전남드래곤즈가 7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전남이 지난 17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6라운드 FC안양과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3월 19일 부산아이파크전 2-0 승리 이후 3무 3패에 그쳤던 전남이 7경기 만에 장식한 승리였다.

전반 6분 박인혁의 슈팅이 골대 위를 살짝 벗어났다. 26분에는 임찬울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대 옆을 지나쳤다.

아쉬움을 삼킨 임찬울이 전반 38분 도움을 기록하면서 웃었다. 임찬울이 왼쪽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길게 공을 띄웠고 문전에서 뛰어오른 김태현이 머리로 안양의 골망을 흔들었다.

1-0의 박빙의 리드는 후반 40분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후반 41분, 이번에는 이중민이 헤더로 득점을 만들었다.

유헤이가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으로 달려든 이중민이 머리로 공을 터치하면서 안양의 골대를 갈랐다. 사실상 승리를 확정하는 쐐기골이었다.

전남은 남은 시간을 잘 버티면서 3무 3패의 부진을 털어내는 승리를 만들었다.

ACL(아시아챔피언스리그) 참가 이후 전개된 리그 두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1무 1패에 그쳤던 전남은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중위권 도약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한편 전남은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무승' 부진에 빠진 안산그리너스(7무 7패)를 상대로 안방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유소년(U-12) 선수 공개 테스트

초등 3~5학년 27일까지 신청

광주FC가 광주 축구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를 찾는다. 광주는 18일 "광주 지역 내 우수 선수 발굴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산하 유소년(U-12) 선수 공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테스트는 축구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테스트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jfc12@gwangjufc.com)로 접수하면 된다.

테스트는 29일 오전 10시 광주축구센터(염주체육단지 내)에서 진행되며, 참가 대상자에게는 개별 연락이 간다.

광주 관계자는 "광주는 현재 엄지성, 허율, 이희균, 정호연 등 유스 출신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 성장해 맹활약을 펼치는 등 '화수분' 유스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축구 꿈나무들을 많이 육성해 장차 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5월 18일 응원 중단

광주FC 선수들 경기 시작 전 묵념

광주를 연고로 한 KIA타이거즈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18일 응원을 중단했다.

KIA는 18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응원을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KIA는 수도권 경기는 물론 전국 모든 원정경기에 '블랙 타이거즈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17일 롯데전에서는 응원전을 펼쳤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응원 없이 차분하게 경기를 치렀다.

광주를 대표하는 또 다른 프로스포츠팀 광주FC도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안산그리너스와 K리그2 15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5·18을 앞두고 진행된 경기였던 만큼 선수단과 팬들은 킥오프 전 그라운드에서 고개를 숙여 묵념을 했다.

또 광주 서포터즈과 팬들은 경기 시작 후 5분 18초 동안 응원을 펼치지 않고, 42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안산그리너스와의 경기에 앞서 에스코트 키즈와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리버풀, 쿼드러플 불씨 살렸다 … 맨시티와 승점 1점 차

손흥민과 득점왕 경쟁 살라 부상으로 출전 안 해

리버풀이 사우샘프턴에 역전승을 거두고 맨체스터 시티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우승 경쟁을 최종전으로 이어갔다.

리버풀은 18일(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 세인트 메리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 EPL 37라운드 원정에서 사우샘프턴을 2-1로 꺾었다.

지난 11일 애스턴 빌라전에 이어 리그 2연승을 거둔 리버풀은 승점 89(27승 8무 2패)를 기록, 선두 맨체스터 시티(승점 90·28승 6무 3패)를 승점 1차로 바짝 추격했다.

나란히 37라운드 일정을 끝낸 양 팀은 38라운드 최종전만 남겨둔 상황이다.

리버풀로서는 오는 23일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프턴과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최종전인 애스턴 빌라와 홈 경기에서 이긴다면 리버풀의 우승은 불가능하다.

이날 간판 골잡이 무함마드 살라와 수비의 중추인 버질 판데이크가 나란히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일본 공격수 미나미노 다쿠미와 조엘 마티프가 공백을 메웠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사우샘프턴이었다.

전반 12분 역습에 나선 사우샘프턴의 네이선 레드먼드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수비수 두 명의 견제를 뚫고 반대편 골대 구석으로 감아찬 오른발 슛이 그대로 골문 구석에 꽂혔다.

끌려가던 리버풀은 전반 27분 미나미노의 골로 동점을 이뤘다.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에서 내준 디오구 조타의 패스를 받은 미나미노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반 박자 빠른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파상 공세를 펼치던 리버풀은 마침내 후반 22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마티프의 헤더로 역전에 성공했다.

역전 결승골을 얻어맞은 사우샘프턴은 승부를 뒤집기 위해 분전했지만 홈에서 패배를 맛보며 15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